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논의

- 사후지원·신청주의 중심에서 예방·발굴 중심으로 복지정책 방향 전환
-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 논의

-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7.2.(목) 「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 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 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*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- * (미래사회전략반, 6명)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(분과장),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,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,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,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,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

- 금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,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- 복지정책은 사후지원·신청주의 중심에서 예방·발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,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해서는 대·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지속 등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.

-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→중견→대기업으로 갈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 성장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,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연명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 -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 설계시 사업 목적, 재원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.
 -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	책임자	과 장	이혜림 (044-214-1710)
		담당자	사무관	심지혜 (jihyesim@korea.kr)

